

제2강 격국의 이해 I

(貧窮命)

丙 丙 乙 庚

申 申 酉 申

庚 己 戊 丁 丙

寅 丑 子 亥 戌

병화일간이 뿌리가 없고 태약한테 재가 태왕하여 재다신약이 되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대운이 화운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수목운으로 가니 가난하고 빈천한 命이다.

제2강 격국의 이해 I

식신격(食神格)

식신격에 살을 쓰면 식신제살격(食神制殺格),
월령이 식신이고 사주에 편인이 있어 식신을 파극하면 식신봉효(食神逢梟),
식신격에 재를 쓰면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이라고 함.

- 식신은 財를 생해주는 것이니 일간의 기운을 뺏아가는 도기(盜氣)라고도 한다.
-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主가 재복이 두텁고 음식이 풍족하며 체구도 비대하고 즐겁고 自足한 생활을 한다. 자식도 있고 장수한다.
- 항상 관성을 보는 것을 꺼린다.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것을 꺼린다.
재성과 상생되는 것을 좋아한다.
- 식신은 하나만 있어야 좋으니 신왕함을 좋아하고 인수를 싫어하니
역시 식신을 상하기 때문이다. 식신의 길흉은 대개 재성의 길흉과 비슷하다.

제2강 격국의 이해 I

식신격이 좋아하는 것

신왕

財星 (식신생재)

식신격에 꺼리는 것

신약

편인

인수태왕

관성

제2강 격국의 이해 I

식신격 成格

1. 일간과 식신이 강할 때 재를 보는 경우(식신생재)
2. 살이 강할 경우 일간이 뿌리가 있으면 성격(식신대살)
3. 일간이 약한데 식신이 태과한 중에 인성이 있는 경우(식다용인)

제2강 격국의 이해 I

식신격 破格

1. 일간이 강하고 식신이 약한데 인성이 있는 경우
2. 일주가 약한 중에 식신생재가 되는데 칠살이 있는 경우

제2강 격국의 이해 I

乙 癸 乙 乙

卯 酉 酉 巳

戊 己 庚 辛 壬 癸 甲

寅 卯 辰 巳 午 未 申

을목 식신이 천간에 투출하고 힘이 있다.

지지에서는 巳酉金局을 이루어 금목교전(金木交戰)이 되고 있다.

비겁이 없어 통관을 못 시키며 대운도 돕지 못하니 평생 명예와 이익이 없었다.

통변 2

강헌 명리 12기 - 용신의 통변

제3강 격국의 이해 II

편관격(偏官格)

인수격을 겸하면 살인격(殺印格), 관성용신일 때 인수용관(印綬用官),
월령이 칠살인데 일지,시지에 있는 양인을 쓰면 살격봉인(殺格逢印),
월령이 칠살인데 식신이 투출하여 칠살을 제압하는데
효신이 있으면 식신을 파극하니 거식호살(去食護殺)이라 이름하니 흉하고,
재격을 겸하면 재살격(財殺格)이라고 함.

제3강 격국의 이해 II

편관

- 편관은 제복(制伏)됨이 마땅하니 편관칠살은 小人이기 때문이다. 小人은 무지하고 흉폭하며 꺼리는 것이 없다.
따라서 징계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제복시켜야 한다. 소인이 권력을 잡으면 재앙이 따른다.
- 만일 다시 삼형이 모두 있으며 양인이 日時에 있고 또 육해가 있으며 다시 괴강이 상충하면 이 사람은 그 흉함을 말로 다할 수 없다.
- 사주에서 제복(식신제살)이 되고 운로에서 다시 제복하는 운이 오면 大貴한 命이다.
- 칠살이 하나 있고 제복이 되면 좋으나 사주에 칠살이 여럿 있고 운로에서 제복하는 운이 되면 오히려 복이 없다.
왜냐하면 흉폭함이 이리와 같아도 제복할 수 없으면 제복운이 오히려 나쁜 것이다.
이런 때는 제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요 인수로 설기하여 일주를 돕는 것이 좋다.
- 제복함이 있으면 편관이라 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라 한다.
소인이 제어되면 正道가 행함이 되나 제복이 없으면 정도를 행할 수가 없다.
칠살을 보고 무조건 흉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귀격사주가 칠살이 있는 자가 많다.
흉신이 모이고 대운이 다시 살운이 오면 그 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신왕하고 칠살이 제복되면 묘하니 살이 변하여 권세가 된다.
- 신왕하고 化殺이 되면 편관이요, 신약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 된다.
사주원국에 제복이 많으면 편관운이 와야 하고, 제복이 없으면 제복운이 와야 한다.
- 사주에 제복이 심한데 다시 대운에서 제복이 되면 편관의 기운이 없어지는데 월령이 양인과 충이 되면 흉하다.
신왕하고 칠살이 약하면 가살위권인(假殺爲權刃)이라 하여 권세를 얻는다. 이런 경우 칠살은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3강 격국의 이해 II

칠살

- 칠살은 편관이 제복되지 못한 것인데 신왕하고 합살(合殺)하는 것과 양인을 좋아한다.
- 신약한 것을 꺼리고 財星이 생하는 것을 싫어하며 제복이 없는 것을 꺼린다.
신왕하고 힘이 있으면 편관이라 하고 신약하여 칠살을 제복하지 못하면 칠살이다.
- 칠살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흉하다고 말하면 안되니 정관격이 편관격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거부(巨富)와 대귀(大貴)인이 이 칠살이 있는 경우가 많다.
- 신왕하고 합살하는 것이 묘하니 甲木이 庚金 칠살인데 병정화가 제압하는 것을 좋아한다. 乙木이 合殺하면 탐합망살(貪合忘殺)이라 하여 좋다.
칠살은 마땅히 제복해야 하나 제복이 너무 태과한 것도 좋지 않다. 사물은 極한 즉 반대로 禍가 되기 때문이다.
- 신약한데 신약운이 오면 禍가 걸잡을 수 없다.
사주에 제복이 있으면 칠살운이 좋고, 사주에 제복이 없으면 칠살운은 나쁘고 신왕운에 양인까지 있으면 大貴하다.
- 재가 왕성한 것은 싫어하니 재가 칠살을 생하기 때문이다.
세운에 재왕운이면 신왕이라도 (칠살이 기신이면) 재앙이 많다. 신약은 더욱 심하다.
- 갑신일 을유일 정축일 무인일 기묘일 신미일 계미일은 칠살이 일지에 있으니 성격이 급하고 영리하며 교묘하며 총명하나,
칠살이 많으면 主는 凶夭하고 가난하며 박복할 것이다. 다시 月에서 칠살을 보는 것은 重하고 時에서 보는 것은 輕하다.
- 칠살은 하나만 있어야 귀한데 年이나 時에서 다시 보면 살이 많으니 화가 된다. 이 때는 제복하는 운로가 와야 좋다.
가장 꺼리는 것은 일지칠살과 양인이 충하는 것이니 대흉하다.
- 時의 칠살도 일위(一位)를 요하며 양인이나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상일위편관격)

편관격이 좋아하는 것

신왕

식신제살(食神制殺)

인수화살(印綬化殺)

칠살일위투출(一位露殺)

양인(羊刃)

편관격이 꺼리는 것

신약

관살혼잡(官殺混雜)

재왕생살(財旺生殺)

귀격사주(貴格四柱)

丙 乙 乙 辛

子 卯 未 丑

을목일간이 신왕한데
신금칠살이 축토지지에 뿌리를 두고 힘이 있다.
또 천간에서는 병신합수,
지지에서는 자축합토가 되어 유정하니
귀하고 권세를 얻었다.

戊 壬 戊 丁

申 子 申 巳

임수일주가 신왕한데
무토칠살이 巳火에 건록이 되니 힘이 있다.
또 정임합과 무계암합도 되니 유정하다.
신살양정(身殺兩停)으로 귀격이다.

빈궁포병(貧窮抱病)

丙 庚 丙 甲

午 子 寅 午

일간이 신약한데 財旺하고,
寅中丙火 칠살이 투출하였으니 살왕신약(殺旺辛弱)으로
운로도 살왕운이 되니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편관격 成格

1. 편관격이 성격되려면 무조건 신강해야 한다
2. 신강하고 칠살이 강하면 식신으로 제살하는 경우
3.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면 인성이 있어야 성격
4. 신살양정하면 관살혼잡이 되지 말아야 성격
5. 일지나 시지에 양인이 있으면 칠살에 대적

편관격 破格

1. 칠살격이면 식신으로 제살해야 하는데 재가 있으면 파격
2. 일간이 약한 경우
3. 재가 무리를 이루어 칠살을 생하는데 제살이 안되는 경우
4. 형충이 있는 경우
5. 칠살이 식신의 제를 받고 있는데 다시 인수가 있는 경우

편인격(偏印格)

- 편인을 도식(倒食)이라 하는데 식신을 파괴하고 財神을 충하기 때문이다.
일명 탄함살(吞陷殺)이라고도 한다.
- 財를 용신으로 쓰거나 식신을 용신으로 쓸 때는 크게 꺼린다.
사주에 편인과 식신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박복하고 수명도 짧다.
- 칠살이 있어 식신이 제살하고 있는데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더욱 흉하다.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 흡사 존장(尊長)이 나를 제압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과 같다.
일을 하는데 항상 결함이 있고 방해가 있으니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재물을 모았다가 잃어버리기를 반복한다. 공연히 바쁘고 매사 성공하기 어렵다.

편인격이 좋아하는 것

편재제압편인(偏財制壓偏印)

비견설기편인(比肩洩氣偏印)

편인격이 꺼리는 것

편인견식신(偏印見食神)

칠살생편인(七殺生偏印)

편인격 成格

1. 일간이 약하고 편인이 있으며 관살이 있을 때
2. 일간이 강하고 편인을 제하는 편재가 있을 때
3. 일간이 강하고 편인이 약하고 관살을 볼 때
4. 일간이 강하고 편인이 세력이 있고 간합이 될 때

편인격 破格

1. 식신을 만날 때
2. 일간이 약하고 편인 인수가 혼잡되고 많을 때
3. 재성이 없고 편인이 태과했을 때
4. 형충이 있을 때

제3강 격국의 이해 II

丁巳 丁丁
卯亥 未未

甲乙丙
辰巳午

기토가 득령하였어도 財위에 앉았고 지지에 해묘미목국을 이루어 칠살이 왕성하다.

천간에 편인이 3개 떠있다. 숫자는 많아도 강약은 중화에 가까운 신약이다.

편인이 많아 식신이 오면 파극하게 되니 좋지 않다.

칠살의 힘을 인수로 통관하여야 한다.

병오운은 좋으나 을사대운에 칠살운이고 癸亥년에 인수를 충극하니 사망하였다.

제3강 격국의 이해 II

壬 甲 丙 甲

申 戌 寅 戌

갑일간이 득령하고 비겁이 많아 신왕한테 병화식신은 좋다.

그러나 임수편인이 투출하여 식신을 파극하고, 지지에서는 신금이 인목을 충한다.

申金은 칠살로서 다시 편인을 도와 흉폭한 작용을 돕는다.

기사대운에 금의 장생지가 되고 경자년에 다시 칠살운이고 임수가 힘을 얻으니
겨울철 子時에 사망하였다.

상관격(傷官格)

상관격에 인성을 쓰면 상관용인격(傷官用印格)
상관격에 재를 쓰면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이라고 함.

- 상관은 상관상진(傷官傷盡, 상관에 의해 관성이 제거되는 것)됨이 중요하다.
즉 사주에 관성이 없거나, 있어도 상관에 의해 파극되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관격에 관성이 파진되지 못했을 때 관성운이 오면 재앙이 극심하다.(傷官見官 爲禍百端)
(그러나 상관격에 관성을 용신으로 쓰는 예외-상관용관격이 있으니 주의할 것.)
- 월령 상관에 사주가 배합하여 상관이 되고 다시 대운이 신왕운으로 가면 眞貴人이다.
- 상관격은 主가 다재다능하고 예술적 소질이 있으며 오만하고 기가 세다.
항상 천하인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군자도 이를 싫어하고 衆人도 이를 싫어한다.
- 운로에서 官을 보면 禍를 말로 할 수 없다.
혹시 길신이 있어 구제하더라도 악질惡疾이나 관형官刑을 만나게 된다.
만일 운로가 관성을 극하는 운으로 가고 재가 왕성하지 않으면 안락하고 형통한 사람이다.

제3강 격국의 이해 II

- 상관 역시 내 기운을 빼가는 것이니 도기(盜氣)인데 정인이 있으면 상관을 제압한다.
만약 인성이 전혀 없고 신약하면 정관을 꺼리나 칠살은 꺼리지 않는다.
칠살은 인수를 생하고 상관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 만약 상관상진(傷官傷盡)이고 사주에 관성이 일점도 없는데 신왕운이나 인수운으로 행한다면 貴하다.
- 사주에 상관상진이고 관성이 일점도 없더라도 재성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가난하고 박명한 사람이다.
상관격은 오직 財를 만나야 묘하다. 이 財가 능히 官을 생하기 때문이다.
- 상관격은 대세운에서 정관을 만나는 것을 가장 꺼리는 바 상관견관이 되어 재화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재를 보면 쓸 수 있다.
- 상관격에 상관이 태왕하면 그 피해가 칠살과 다름없이 심하다.
연주에 상관이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월주에 상관이면 형제가 온전하지 못하며
시주에 상관이면 子息이 無傳하고 일지에 상관이면 처첩이 온전치 못하다.
- 상관의 화가 가벼우면 멀리 귀양이요, 무거우면 惡刑을 당하고 傷官有戰이면 그 수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 월령에 상관이고 사주에 합으로 모두 상관화되면서 신왕운으로 가면 貴命이다.
- 상관격은 자기 재주를 믿고 오만하여 타인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여러 사람이 싫어한다.
-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으면 재성이 있어 상관을 재로 화하여 정관을 생해 주면 정관이 보호되어 좋다.
이런 사주가 재왕운으로 가면 발복하고 재성의 사절지로 가면 사망할 것이다.
대운에서 지지에는 財가 없고 천간에만 財가 있으면 허탈하니 쓸모가 없다.

상관격이 좋아하는 것

신왕

財星 (상관생재)

상관상진(傷官傷盡)에 財運

정인제압상관

상관격이 꺼리는 것

상관견관

상관격 成格

1.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있는 경우 (상관생재)
2. 일간이 약한데 상관의 설기가 심하면 인성이 있어야 성격 (상관패인)
3. 상관격에서 일주가 약하고 상관이 왕성한데 편관과 인수가 동시에 투출한 경우 (상관살인)
4. 상관격에 일간이 강하고 편관이 강하면 상관가살 (상관제살)

상관격 破格

1. 상관격에 정관이 있으면 파격(상관견관)
2. 상관생재인데 편관이 투출되어 있으면 파격
3. 신강한 상관격에 인수가 많으면 파격
4. 일간이 약하고 상관격에 재성이 많은 경우
5. 형충이 있는 경우
6.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데(상관생재) 재성이 합거되는 경우 파격
7. 상관패인에 인수가 재성을 만나면 파격

제3강 격국의 이해 II

壬 甲 丙 壬
申 午 午 申

상관패인(傷官佩印)이 있다. 인수란 능히 상관을 제압하므로 귀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도리어 상관이 왕하고 조금 신약하여야 비로소 수기가 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나평장(羅平章)의 명조는, 상관이 왕하고 인수가 뿌리가 있고 신약하다.

더욱이 여름의 나무가 물을 만났으니 그 빼어남이 백 배에 이른다. 그러므로 일품(一品)의 귀를 누렸다.

그러나 인수가 왕하고 뿌리가 깊으면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

정인과 편인이 잡다하게 투출하면 오히려 빼어나지 못하다.

그러므로 상관이 경미하고 신강한데 인수가 많이 있으면 빈궁하게 된다.

상관격에 정관을 쓰는 상관용관(傷官用官)이 있다.

다른 상관격은 정관을 쓰지 못하지만 오로지 금수상관격만은 관살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수상관격에서도 재와 인으로 정관을 보좌해야 하며 정관과 상관이 모두 천간에 투출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제3강 격국의 이해 II

丁 庚 甲 戊
丑 午 子 申

癸水 상관은 지지에 있고 丁火 정관은 천간에 있다.

戊와 甲이 정관을 보좌하면서 정관이 지지에서 녹(祿)을 얻었다.

그러므로 승상이 될 수 있었다.

만약 고관무보(孤官無輔:보필이 없는 외로운 정관)이 되었거나
혹은 정관과 상관이 모두 천간에 투출했다면 발복이 크지 못했을 것이다.

양인격(羊刃格)

- 월령이 양인인데 칠살을 용신으로 삼으면 양인로살(羊刃露殺, 살인격殺刃格)이라고도 한다.
- 양인은 천상의 흉성으로서 인간의 惡殺인데 편재, 칠살을 좋아하고 인수를 좋아한다.
- 양인은 괴강과 삼합을 꺼린다.
- 사주에 양인이 있다고 무조건 흉하다고 말하지 말라. 양인이 있는 자에 富貴人이 많다.
- 대개 양인은 칠살과 같은 부류이다.

칠살이 양인이 없으면 이름을 드날리지 못하고, 양인이 칠살이 없으면 위엄이 없다.

양인과 칠살이 모두 있어야 비상한 사람의 명조이다.

- 대개 신왕함을 요구하고, 상관운이나 양인운을 만나면 좋지 않다.

사주에 칠살과 양인이 있는데 세운에서 다시 만나면 그 禍가 비상하다.

만약 사주에 양인이 있고 칠살이 없는데 칠살운이 오면 오히려 복록이 두텁다.

상관격에 재가 왕성하거나 신약하고 칠살이 왕성한 것을 가장 꺼린다.

양인격 成格

1. 양인격은 관살로 제압해야하며 관살을 쓰게 되면 식상이 없어야 성격 (양인제노, 양인용관)
2. 양인격에 관살이 있고 식상이 극하면 파격되는데 이때 인수가 있으면 성격

양인격 破格

1. 양인격에서 관살이 없으면 파격
2. 양인격에 관이나 편관이 투출했으나 식상이 있는 파격
3. 양인격에 편관이 투출했으나 편관이 합거된 경우도 파격

제3강 격국의 이해 II

戊 甲 己 庚

辰 寅 卯 申

乙 甲 癸 壬 辛 庚

酉 申 未 午 巳 辰

일간이 월령 양인이고 경금 칠살도 힘이 있는데 을경암합으로 유정하게 되었다.
신왕한테 식상운으로 향하니 귀하게 되었다.

제3강 격국의 이해 II

甲 戊 甲 辛
寅 午 午 酉

무토가 오화 월령이 인수인데 일지에 양인을 깔고 앉았다.

칠살 갑목이 힘이 있고 양인과 합이 되었는데 年에는 상관이 자리잡고 있다.

辛卯대운에 정관 卯木이 상관 酉金에 충을 당하니 흉하다.

壬辰세운에 진유합금으로 상관이 더 강해지니 정관을 충하여 물에 몸을 던져 익사하였다.

제3강 격국의 이해 II

록겁격(祿劫格)

- 일간의 월지가 비견인 경우(건록격)와 음간의 월지가 겁재인 경우(월겁격)
- 월령에서 녹을 만나면 건록이고, 일지에서 녹을 만나면 전록(專祿)이고, 시지에서 녹을 만나면 귀록(歸祿)이고, 년지에서 녹을 만나면 세록(歲祿)이다.
- 월겁이란 월지가 겁재인 것을 말한다. 월지의 겁재를 양 일주는 양인이라고 하고, 음 일주는 겁재라고 한다.
- 건록격이든 월겁격이든 이를 취하여 쓰지 않고 별개의 재관살식상 등을 용신으로 정한다. 그렇게 격이 정해지면, 보는 법은 재관살식상격을 보는 법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월겁격이라고 해서 용신 정하는 법을 별도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 일간이 신강하면 건록은 재를 분탈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간이 신약할 때 건록은 든든한 동조자의 작용을 한다.
- 건록은 출세를 위한 자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자수성가로 성업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 월겁이 되면 일간과 동기가 되는 기운으로 일간이 강해지기 쉽다.
건록이 있으면서 천간에 다시 비겁이 투하면 신약이더라도 쉽게 파재되는 경우가 많다.
- 건록격이 신강한데 다시 인성이 겁하거나 건록을 형충하여 극제하면 격국의 청기를 논하기 어렵게 된다.
- 록겁용관격에서 '고관무보(孤官無補, 정관이 보호받지 못하여 외로움)'는 용신으로 쓸 수 없으니 록겁용관격의 정관은 반드시 인성의 보호를 받거나, 재성의 보조를 받아야 함

록겁격 成格

1. 정관이 투출하고 재성과 인수가 있으면 성격 (정관격과 동일하게 판단) (록겁용관)
2. 재성이 투출하고 식상이 있으면 성격 (록겁용재)
3. 편관이 투출하고 식상의 제복이 있으면 성격 (록겁용살)

록갑격 破格

1. 투출된 정관이 상관으로부터 파극되는 경우
2. 재성이 투출하고 다시 편관이 투출한 경우

제3강 격국의 이해 II

甲 庚 甲 庚
申 子 申 子

록겁용재(祿劫用財), 상관생재(傷官生財), 화겁위생(化劫爲生)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 성격, 록겁용재격(祿劫用財格) [자평진전 고상서 명조]

갑자년 갑신월 갑자일 갑신시는 지지 비견 신금이 자수 상관과 수국(水局)을 이뤄
편재 갑목을 생하는 화겁위생으로 재물을 생산하는 능력이 크게 귀해졌다.

제3강 격국의 이해 II

壬 癸 丙 甲
辰 丑 子 子

록겁용재격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데, 이 경우 비겁에게 재성이 겁탈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록겁용재격은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한다. (식상생재)

제3강 격국의 이해 II

丁 癸 戊 庚
巳 卯 子 午

신강치삼기(귀격)

록겁용관격 중에서 재성과 인성이 함께 하면서,
정관이 재성과 인성 사이에 있어 서로 상하지 않고,
정관을 돕는 것을 '신강(身強)치삼기'라는 귀한 격국.

성중유패(成中有敗)와 패중유성(敗中有成)

제3강 격국의 이해 II

성중유패

財格

財旺生官 而又逢傷

(재성이 왕하게 관을 생하는데 상관을 만난 경우)

상관은 관을 해치므로 파격이 된다.

正官格

正官逢財 而又逢傷

(정관이 재성을 만나고 다시 상관을 만난 경우)

정관이 상관을 보면 피상된다.

透官而又逢合

(관이 투했는데 합이 되는 경우)

관성이 투했는데 합이 되면 관성으로 기능을 잃는다.

제3강 격국의 이해 II

印綬格

印透食 而泄氣 而又遇財露

(인수격에 식신이 투해서 설기하는데 다시 재성을 만난 경우)

인수격에 식신이 투해서 설기하는데 다시 재성이 노출되어 인수를 극하면 파격이 된다.

透煞以生印 而又透財 以去印存煞

(살이 투해서 인수를 생하는데 재가 다시 투해서 인수를 제거하고 살만 남는 경우)

칠살이 투해서 인수를 생하는데,

다시 재성이 투하여 인수를 제거하고 칠살만 남기면 거인유살로 흉살이 남으니 파격이 된다.

食神格

食神帶煞印 而又逢財

(식신격에 살, 인이 있는데 다시 재를 만나는 경우)

식신격이 신약하여 살인상생하는데,
다시 재성을 만나 인수를 피격하면 살인상생이 되지 않는다.

七殺格

七煞逢食制 而又逢印

(칠살이 식신의 제함을 받는데 인수를 만나는 경우)

칠살은 흉신으로 식신으로 제하는데 인수운에 식신을 파하면 칠살이 날뛴다.

傷官格

傷官生財 而財又逢合

(상관이 재를 생하는데, 재를 만나 합이 되는 경우)

상관이 재를 생하는데, 재가 합되는 운을 만나면 재의 기능을 잃는다.

傷官佩印 而印又遭傷

(상관패인하는데 인수가 다시 상관을 만나는 경우)

상관패인은 인수가 약해진 일간을 부조하고 상관을 제하는 우수한 격국이다.

이때 다시 상관을 만나면 상관성이 너무 강해진다.

陽刃格

陽刃透官 而又被傷

(양인격에 관이 투했는데, 다시 상관이 관을 파하는 경우)

양인은 관살로 제하는데 상관을 만나 관을 파하면 양인의 흥의가 커진다.

透煞 而又被合去

(양인격에 살이 투했는데 다시 합거하는 경우)

양인격은 관살로 제하는데 칠살이 합거되면 양인은 흥의를 드러낸다.

祿劫格

建祿月劫透官 而逢傷

(건록 월겁격에 관이 투했는데 상관을 만나는 경우)

건록격 월겁격은 관살로 힘을 제하는데 상관을 만나 관을 제하면 강함이 지나치다.

透財 而逢煞

(록겁격에 재성이 투했는데 살을 만나는 경우)

록겁격을 재로 힘을 빼는데, 살을 만나 재성이 칠살을 생하면 흉살의 힘이 지나치다.

제3강 격국의 이해 II

패중유성

財格

財逢劫 而透食以化之

(재가 겁재를 만났는데 식신이 투해서 화하는 경우)

재격에서 겁재가 재를 분탈하는데, 식신이 투해서 겁재의 흥의를 화하여 재를 생한다.

財逢劫 而 生官而制之

(재격에서 겁재가 투했을 때 재생관으로 겁재를 제함)

겁재가 재성을 분탈하는데, 재성이 관성을 생하여 겁재를 제하는 경우다.

逢煞 而食神制煞 以生財

(재격이 살을 만났는데 식신으로 제살하고 생재하는 경우)

재투칠살은 파격인데, 식신을 만나 칠살을 제하고 재성을 생하는 경우이다.

或存財-而合煞 (혹은 재투칠살에서 재성은 남기고 칠살을 합거하는 경우)

正官格

官逢傷 而透印以解之

(관이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투해서 화살하는 경우)

雜煞 而合煞 而清之

(관살이 혼잡되어 있을 때 합살하고 관을남겨 사주를 맑게 하는 경우)

刑沖 而會合 而解之

(관이 형충이 되어 있을 때 회합하여 형충을 해소하는 경우)

印綬格

印逢財 而劫財 以解之

(인수가 재를 만나면 파격인데, 겁재가 통관하여 화하는 경우)

或合財 而存印

(혹은 재를 만나 파격일 때 재를 합하고 인수를 남기는 경우)

제3강 격국의 이해 II

食神格

食逢梟 而就煞以成格

(식신이 효신을 만나면 식신봉효로 파격인데, 칠살이 오면 기식취살로 성격됨)

或生財 以護食

(혹은 재성을 생하여 재성이 효신을 제하여 식신을 보호하도록 함)

七殺格

煞逢食制 印來護殺 而逢財 以去印存食
(오행구족)

칠살이 식신의 제함을 받으면 성격, 인수가 와서 칠살을 보호하는데 재성을 만나면 파격,
다시 인수를 제거하고 식신을 남기면 성격이 됨

제3강 격국의 이해 II

傷官格

傷官生財 透煞 而煞逢合

(상관생재하는데 칠살이 투하면 재투칠살로 파격, 그러나 살이 합반되면 성격됨)

陽刃格

陽刃用官煞 帶傷食 而重印以護之

(양인이 관살을 용하는데 식상을 대동하면 식신제살로 파격인데,
인성이 식상을 제하면서 관살을 보호하면 성격됨)

祿劫格

建祿月劫用官-遇傷-而傷被合

(건록월겁격이 관성을 용하는데 상관을 만나면 파격이 됨.
이때 상관을 합반시키면 다시 성격이 됨)

用財帶煞 而煞被合

(록겁격에서 재를 용하는데 살을 만나면 재생살로 파격인데, 살을 합반시키면 다시 성격이 됨)